

검찰총장 후보 오늘 윤곽... 호남출신 '주목'

법무장관 인사와 투트랙 진행... 오늘 후보추천위 개최

호남출신 소병철 교수·조은석 부원장 심사 대상 포함

새 검찰총장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3일 열리게 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는 사실상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여권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추천위가 압축한 후보군 중 장관이 1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게 정식 절차지만, 박상기 후보자의 임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더는 기다리지 않고 이급로 차관에게 제청을 대행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은 안경환 전 후보자의 낙마로

총장 인선을 비롯해 검사장급 이상-고검 검사급(차장·부장)-평검사 인사가 줄줄이 미뤄지면서 정부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새 진용을 짜지 못하고 있다. 박상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7월 중순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차대로 장관-총장 순으로 임명할 경우 일선 인사는 빨라야 8월말~9월초에야 가능하다. 하지만, 두 자리 인선을 분리해 동시 진행할 경우 인사 시점은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런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나 사정작업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하는 인선인 만큼

청와대 검찰 장악력도 커질 공산이 크다. 후보 추천위원 명단에 개혁성향 인물이 대거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추천위원 9명 중 비당연직 4자리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현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 기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군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법무부장관은 추천위가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만큼, 이급로 법무부 차관이 임명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의 심사를 받을 이들은 모두 13명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4~20일 검찰

총장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검찰 내부 인사로는 ▲김희관(54·사법연수원 17기) 법무연수원장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김강욱(59·19기) 대전고검장 ▲조은석(52·19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조희진(55·19기)의정부지검장 등 7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검찰 출신 인사로는 ▲소병철(59·15기) 농협대 석좌교수 ▲이건리(54·16기) 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 ▲신경식(53·17기) 전 수원지검장 ▲변찬우(57·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정인창(53·18기) 전 부산지검장 등이 천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소병철 교수와 조은석 부원장 등은 광주·전남 출신 인사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이번주 청문회 시즌 4

내일 정현백 여가부·유영민 미래부... 4·5일 대법관 후보

지난주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국회가 3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주 다시 한번 인사 청문회 시즌을 맞는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는 오는 4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한다. 아울러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는 4일과 5일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아당은 김은경 후보자의 용역보고서 자기 표절, 아들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유영민 후보자에게는 위장전입·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백 후보자는 참여연대 대표 당시 전안함 폭침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청문회에서는 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새롭게 청문 절차에 들어가는 후보뿐 아니라 이미 청문회를 바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을 이번주에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환노위는 3일 김상곤·조대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올려놨지만, 채택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또 국회 국방위는 지난 30일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자기 표절, 아들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유영민 후보자에게는 위장전입·농지법 위반

/*박지경기자 jkpark@

“제보 조작 반성 먼저”...국민의당 전대 연기론

박주선·박지원 등 사측생 각오

오늘 의총... 대책 마련 부심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증거 조작 파문이 확산되면서 국민의당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증거 조작 사태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지도부 등 당의 개입이 있었다면 당의 해체를 주도하겠다”는 사측생의 입장을 나타냈으며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은 당이 기획해서 조작에 나섰다던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 1일 “제가 조작 음모에 가담했다면 목을 내놓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번 조작 사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점은 통감하지만 선대위 차원에서 조작에 연루될 만큼 정치적 역량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총선 리베이트 파문과 같이 이번 사태에서도 결국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등 뒷선으로 확대하고 있어 국민의당 지도부는 내심 긴장하는 모습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해서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걸리는 부분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당을 압박하면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이번 사태가 당이 아닌 개인의 일탈로 나타날 경우,



‘착잡’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보 조작’ 사건 관련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최소한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의 결집과 혁신을 이슈로 전당대회 개최에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전의 계기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일부 간부들이 조작에 관여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국민의당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당 소속 호남 지역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에서는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연기가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당권 등 전대를 준비하기 보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견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검찰 수사와 자체 진상조사 등 사건 대응과 혁신을 위한 당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만큼, 전대 규격을 논의하고 확정할 여유가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3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전

대 연기 의견이 많을 경우 일정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당은 당분간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호남 민심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호남의 지지로 탄생한 집권 여당 그리고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국회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것이 호남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구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오늘 대표 경선

홍준표·원우철·신상진 3파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2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패배 후 새 지도부를 뽑는 자리인 이 전당대회에는 대표 후보로 신상진·홍준표·원우철 후보(이상 기호 순)가 나섰다. 또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4명을 뽑아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게 된다.

대선후보였던 홍 후보가 높은 인지도로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가운데 원 후보는 19대 국회 말미에 원내 대표를 지내며 이름을 알렸고, 신 후보는 나머지 두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인지

도가 낮지만 ‘인물교체론’을 펴고 있다. 최고위원의 경우 3선의 이철우 후보가 TK(대구·경북)를, 재선의 김태흠·박맹우 후보가 각각 충청권과 PK(부산·경남)를 지역기반으로 삼아 경쟁에 들어갔고, 이성현 전 의원과 이재만 대구 동구를 당협위원장 등이 원외 세력의 지원을 받으며 최고위원 경쟁에 뛰어 들었다.

여성 최고위원 1석을 놓고는 원내인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과 원외인 류여해 수석부대변인, 김정희 현 무궁화회 총재가 맞붙은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이유미 단독 범행 결론

안철수 “보고 듣고 알았다”

국민의당은 2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당원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진상조사단(단장 김관영 의원)의 대면조사에서 ‘공명선거추진단장인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이번에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안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시점은 지난 달 25일이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장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리더십 콘퍼런스 중국 측 방한단 만찬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 맞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며 “김 의원으로부터 ‘조사단장으로서 판단해볼 때 이유미 당원의 단독범행’이라는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제보조작을 몰랐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한다”고 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안 전 대표가 제보조작을 인지한 시점을 묻는 말에 “지난달 25일인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등 당 관계자들을 3일 무더기로 소환해 조사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파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